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2월 뉴스레터 vol. 62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우고 비우고

70대까지 살아갈 기획이 필요하다

채비 추모장례 이야기

쪽방촌 노인을 지나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의 아름다운 추모

알쓸신장

종교 별 장례의식

숫자로 보는 채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 52.3%

메멘토모리

내 차례가 오면, 나는 멋지게 삶을 마감할거야

조합소식

서울조합, 제4기 대의원 후보자 등록 안내

70대까지 살아갈 기획이 필요하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불행히도 내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중반부터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중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는데, 연초부터 기력이 쇠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다. 여러 검사 끝에 급기야 ‘갑상선 기능항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기본수치보다 7배나 높다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500그램씩 체중이 감소했는데 그게 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이란단다. 이게 가족력이라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메티마졸이라는 약을 복용하면서 설 연휴를 꼬박 누워지냈다. 일어나기만 하면 어지럽고 맥박이 빨리 뛰면서 숨이 차고 구토가 일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불현듯 공포감도 밀려왔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며 소일했다.

그러다 책을 하나 집어 들었는데,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쓴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제목이었다. 그중 ‘중장년 인구의 노후는 무엇으로 보장되는가’ 편이 눈길을 끌었다.

이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 듯, 일반적으로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9년 UN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억이 넘는다. 2050년에는 15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에서 동아시아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령 변화는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헬스케어 시스템,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로 사회구조도 바뀌고 연령간 갈등도 나타날 것이다. 인구가 많은 고령층은 정치적 영향력도 커져 사회 자원을 더 많이 분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촉발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나온 것이다.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연령대별로 혜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국가채무를 늘려야 한다. 이 채무는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의 노후는 무엇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 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낸다는 아름다운 상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벌여 놓은 것이 많지 않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는, 자녀들에게 기대하기도 어렵다면 오십 대 후반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등골이 서늘해진다.

국가도 가족도 믿을 수 없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퇴직 후 연금은 크게 기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오래도록 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자기 계발이다.

‘나이 오십 넘어 이제 와서 무얼 또 배우냐,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미래냐, 배워봤자 젊은이들에게 치일 텐데...’ 하지만 이런 자포자기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손 놓고 있으면 기다리는 것은 가난하고 힘겨운 노후일 뿐이다.

얼마 전 실직한 내 친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수어(手語)를 배웠다. 그 덕에 외국인 청각장애인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친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우리에게 70대까지 스스로를 지켜줄 10년의 기획이 필요하다. 은퇴할 시기가 10년 이상 미뤄졌기 때문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50대의 또래들아, 힘들어도 우리 계속 파이팅 하자.*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쪽방촌 노인을 지나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의 아름다운 추모



그날이 되기 며칠 전,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강은빈이라는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다. 추모식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아~ 청년이 안타깝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70대 중반 즈음 된 노인의 추모식이었다.

이 노인은 00동 쪽방촌에서 기거했고,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들이 몇 년간 돌보아 드리던 중 최근에 임종했다. ‘기후 운동을 하는 청년들이 왜?’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이 일의 시작은 21년 8월 19일에 강은빈 청년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사회장>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홀로 광장에 서 있던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고통과 외로움이 그 표정에 가득했다고 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사회장>에 시간 맞추어 가야 하는데, 가난해 보이는 노인을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성서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에 나오는 이방 여인에서 유래된 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조건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은빈 청년에게서 김채원 청년에게로 그리고 기후긴급행동의 많은 청년에게로 김학성 할아버지를 돌보는 끈이 연결되었다. 2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은 끈끈한 만남을 가졌다. 쪽방촌에 가서 놀고, 기대됐다. 동대문에서 할아버지 옷을 샀고 소소한 생활용품을 사다 드렸다. 할아버지는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같이 사진도 찍었다.

그러다故 김학성 할아버지는 22년 12월 12일에 00동 쪽방촌에서 임종했다. 무연고자 장례 절차를 따라 1월 18일 화장(火葬) 하는 날에 맞춰 공간채비에서 진행했다. 채비 직원들은 하루 종일 추모식을 위해 공간에서 준비를 했다. 밤이 되자 추위에 상기된 청년들이 삼삼오오 공간채비로 들어왔다. 기후 운동으로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돌아오느라 추모식이 늦어졌다. 날도 껏운데 마음이 짠했다. 따뜻한 차 한 잔씩 돌리고 박주석 청년의 사회로 추모식을 시작했다.

故 김학성 할아버지와 기후긴급행동 청년들과 함께 했던 사진 영상을 보았다. 사진 속 장면은 누가 봐도 따뜻한 마음이 들 것 같다. 슬픔과 따뜻함이 번갈아 마음을 채우고 비웠다.

김채원 청년과 여러 청년들이 할아버지와 가진 추억을 차근차근 자세히 이야기했다.

강은빈 청년이故 김학성님에 대한 이야기와 〈바람이 부네요〉를 노래를 올렸다. 많이 울고 많이 위로했다.

2020년10월에故 박정숙 선생님 장례에 왔던 김진열 감독이 다시 영상 촬영을 했다. 김진열 감독은 그때 채비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이야기했다.

추모식이 끝나고 단체 촬영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학성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순간을 남기고 싶어 했다.

청년들이 돌아가고 난 후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기후 운동의 동기는 무엇인지? 세대갈등이 이슈가 된 요즘에 청년과 노인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채비는 이런 일에 어떤 역할을 할까?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종교 별 장례의식

종교별로 장례의 절차와 방법이 다양하여 종교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종교별 장례 문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채널

협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문화

기독교 장례

기독교식 장례는 사람이 소천한 다음, 시신의 수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식과 절차가 목사의 집례 아래 이루어집니다.

임종 시부터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의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은 빈소에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합니다.

기독교 장례 예배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화장예배, 위로예배 등
※ 각 교회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와 다르게 곡을 하지 않고 음식도 차리지 않으며
 절 또한 하지 않으며 국화꽃으로 헌화하면서 마음을 대신합니다.

조석으로 전을 올리거나 상식을 올리지 않으며
 염습할 때 매장포로 묶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장례

기독교식 장례는 사람이 소천한 다음, 시신의 수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식과 절차가 목사의 집례 아래 이루어집니다.

임종 시부터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의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은 빈소에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 장례와 다르게 곡을 하지 않고 음식도 차리지 않으며 절 또한 하지 않으며

국화꽃으로 헌화하면서 마음을 대신합니다.

조석으로 전을 올리거나 상식을 올리지 않으며 염습할 때 매장포로 묶지도 않습니다

채널

협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문화

불교 장례

불교에서는 장례식을 다비식(荼毘式)이라고 하는데 '다비'란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화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화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교 장례 절차

개식선언 → 삼귀의례 → 약력보고 → 착어 → 창혼 → 헌화
 → 독경 → 추도사 → 소향 → 사홍서원 → 폐식 선언
※ 종파별, 사찰별로 식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9재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으로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매 7일째마다 7회에 걸쳐서 개최하는 불교의식

백일재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제사로 49재를 지낸 절에서 진행하며 사람이 죽은 지 백일이 되는 날에 드리는 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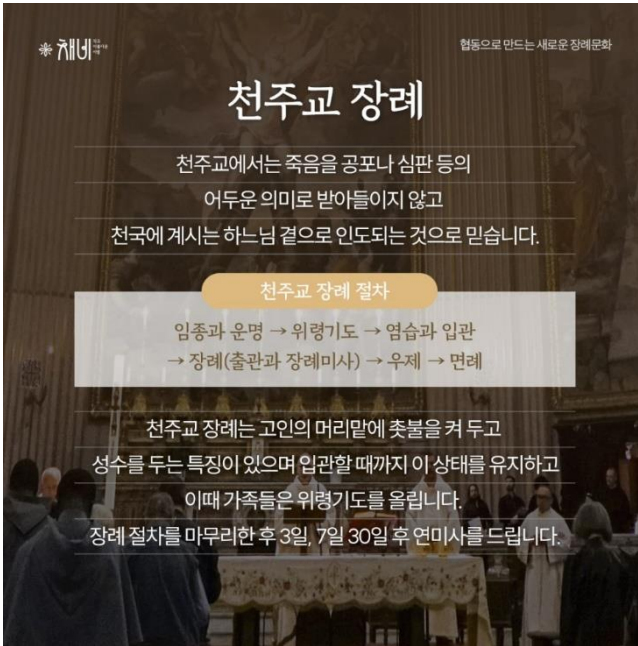
불교 장례

불교에서는 장례식을 다비식(荼毘式)이라고 하는데 '다비'란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화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화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9재 :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으로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매 7일째마다 7회에 걸쳐서 개최하는 불교의식

☆ 백일재 :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제사로 49재를 지낸 절에서 진행하며 사람이 죽은 지 백일이 되는 날에 드리는 불공



천주교 장례

천주교에서는 죽음을 공포나 심판 등의 어두운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에 계시는 하느님 곁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천주교 장례는 고인의 머리맡에 촛불을 켜 두고 성수를 두는 특징이 있으며

입관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이때 가족들은 위령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3일, 7일 30일 후 연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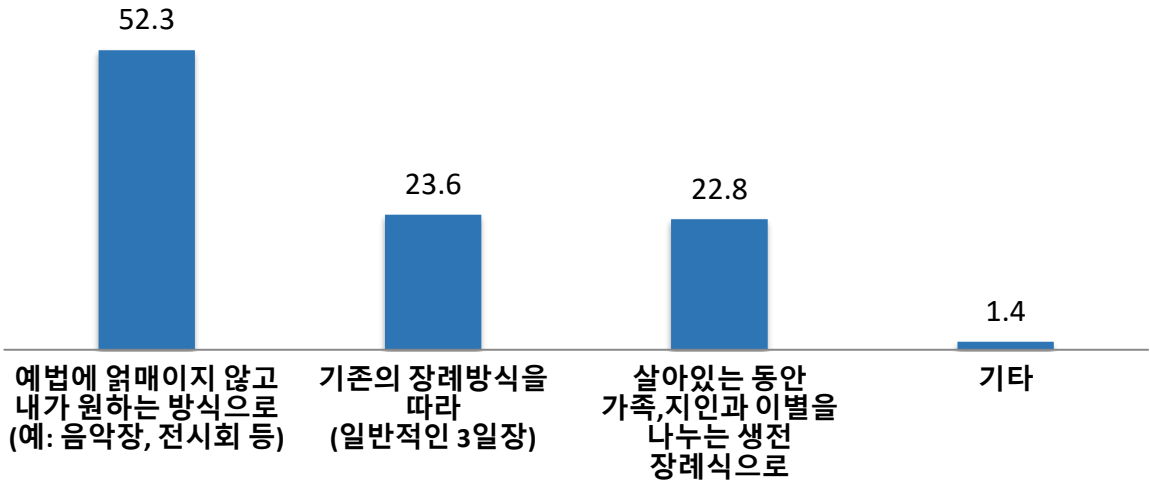
*내용 및 이미지 출처: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1

본인의 희망하는 장례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 52.3%

희망하는 장례방식-본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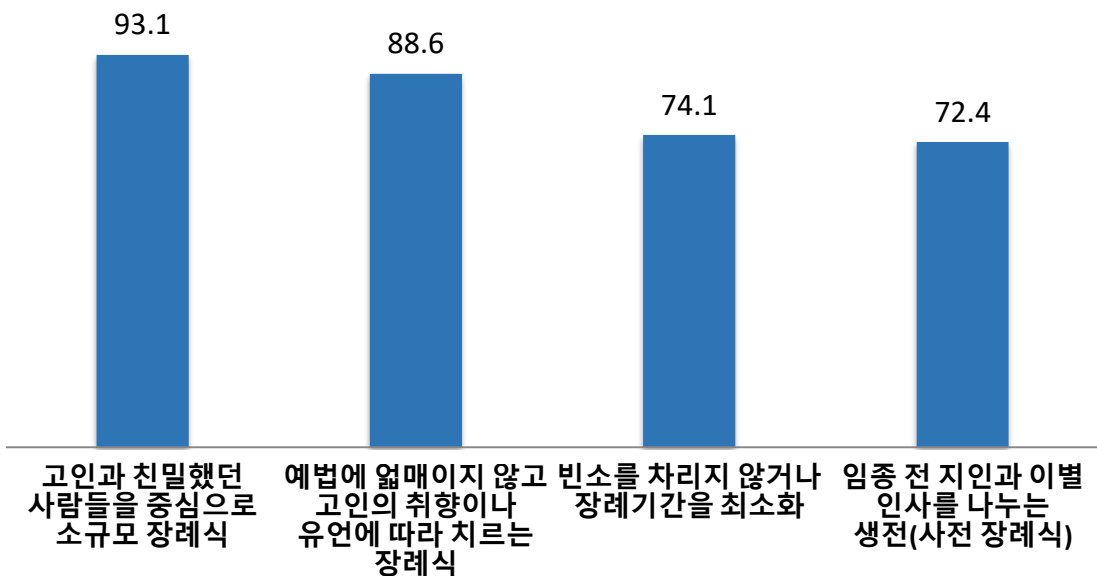


2

사랑하는 사람, 가족의 희망하는 장례방식

고인의 친밀한 지인 중심의 소규모 장례식을 원한다.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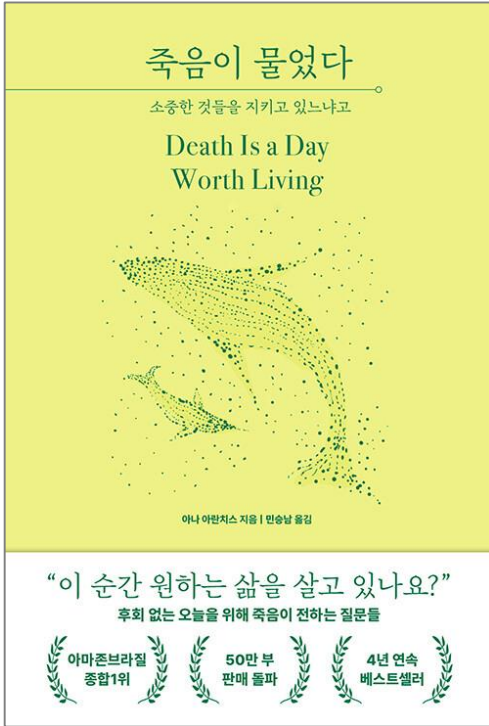
희망하는 장례방식에 대한 동의률* - 사랑하는 사람/가족 (%)



* 4점척도 중 '매우 긍정적'+'긍정적' 비율의 합

**자료출처: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 조사. 20~50대 장례/문상 경험 성인 1312명.,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차례가 오면, 나는 멋지게 삶을 마감할거야



죽음이 물었다 아나 아란치스 | 세계사

《죽음이 물었다》는 완화의료 전문의인 저자가 죽음을 곁에 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성찰을 다룬 책이다.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돌보는 의사로서 저자가 경험한 삶과 죽음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완화의료의 현실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다정한 시선으로 전한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아무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죽음의 순간을 통해, 저자는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사는 삶을 택하지만 모두가 살아 있는 상태로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 저자는 오늘의 삶이 어떻게 죽음의 모습으로 투영되는지 알려주면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기회를 선사한다.

죽음은 보편적인 단어인 동시에 무척 개인적인 단어이다.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겪지만, 그 체험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급작스럽게 다가온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나온 삶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찬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오다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지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것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겪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 책은 죽음을 가장 가까워서 돌봐온 의사의 체험기이지만, 저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늘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 떠올려보자. 겨우 눈을 떠 아침을 맞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몸에 나쁜 음식을 사 먹고, 다닐 시간도 없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고, 입지도 않을 옷을 사지는 않았는가? 삶에서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봤을 때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자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온 대로 죽는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가질 가망도 없다”라고 말하며, 좋은 삶이 있어야 좋은 죽음도 있다는 점을 설파한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서울조합] 제4기 대의원 후보자 등록 안내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하 서울조합)의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배부 및 접수기간 : 2023년 2월 8일 ~ 2월 15일 (18시 도착분까지)

*접수방법 : 방문, 우편(당일소인) 또는 이메일

2. 등록장소 : 서울조합(선관위)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헤센스마트 b113호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전화 : 02-722-9517

*이메일 : memorypicture@naver.com

3. 구비서류

1) 대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아래 첨부자료

2) 조합원 자격증빙 서류(사무국 문의)

4. 등록자격요건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대의원 선거규약에서 정한 선출공고일 현재 조합에 2개월 이상 연속해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조합의 각종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조합의 각종 조합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단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인 자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선출방법 및 유의사항

1)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 안에서 조합원이 후보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한다.

2)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 할 대의원 수 이하일 경우 직접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3)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입후보 등록서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chaebi_official/223009194468

[마음치유 프로그램] 상실에서 삶으로

인생에서 죽음과 상실을 피할 수 없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애도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삶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애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픈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며 스스로 그리고 함께 우리의 삶을 다독이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애도 작업에 관심 있으신 조합원분들을 초대합니다.

■ 개요

- 교육내용: 상실을 나누고 애도하기
- 대상: 조합원중 장례를 치른 분.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고 싶은 분. 애도를 준비하고 싶은 분.
- 일정: 2023년 2월 8일(수)/ 2월 15일(수) 오후4~6시(총 2강)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5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참가 비용: 조합원 무료, 비조합원 만원
- 신청 링크: <https://forms.gle/ArCNfzTA6kzwjcvj7>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주제	내용	강의 날짜
제1강 기억과 감정 만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가는 명상 - 애도에 대하여 : 간략한 소개 - 나의 애도 이슈: 참여동기와 경험 나누기 - 희로애락 이야기: 고인과의 관계와 감정, 그리운 것과 그리지 않은 것 - 짧은 명상: 신체화 감각 다루기 	2월 8일(수) 오후 4시~6시
제2강 감정 돌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여는 명상 - 감정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 - 의식의 공간 경험하기 :애도 감정을 만나고 흐름에 맡기기 - 새로운 관계 발견하기: 편지 쓰기, ‘고인과 나’ 다시 소개하기 - 짧은 명상: 마무리 	2월 15일(수) 오후 4시~6시

■ 강사소개

김은자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공부했고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에서 일했다. 10대때 가족들을 잃으면서 겪은 상실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공부 중 가족세우기 전문과정 중 촉진자 교육과정 및 개인세션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함께하는 애도 작업을 시작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와 ‘자연에 대한 존중’ 등을 번역했다.

2023년 1월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박홍근 조합원 모친상
김명환 조합원 모친상
배한익 조합원 부친상
강희정 조합원 조부상
전지영 조합원 모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조상기 조합원 부친상

김창재 조합원 빙모상
윤광한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최귀년 조합원 모친상
김동희 조합원 모친상
안창로 조합원 빙모상
김상규 조합원 빙부상

백종필 조합원 부친상
안영찬 조합원 빙부상
문경인 조합원 조모상
강상철 조합원 모친상
심명희 조합원 시모상
이옥자 조합원 모친상
김석원 조합원 부친상

2022년 12월

이영민 조합원 모친상
이창근 조합원 부친상
박준기 조합원 부친상
김해용 조합원 장인상
최경순 조합원 모친상

이승재 조합원 부친상
이인희 조합원 고모상
이미영 조합원 시부상
김정희 조합원 모친상
송창석 조합원 장인상

최란 조합원 모친상
윤용호 조합원 모친상
권태영 조합원 삼촌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현희 조합원 모친상

2022년 11월

정규호 조합원 부친상
곽영권 조합원 모친상
최은선 조합원 부친상
양광용 조합원 모친상
김영훈 조합원 모친상
왕영술 조합원 지인상
정영훈 조합원 모친상

권대영 조합원 모친상
오현재 조합원 모친상
방대수 조합원 친척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정은주 조합원 시부상
정명희 조합원 모친상
김의순 조합원 본인상

권종택 조합원 장인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장재필 조합원 모친상
최남주 조합원 시부상
김동후 조합원 부친상
차성호 조합원 지인상
장양미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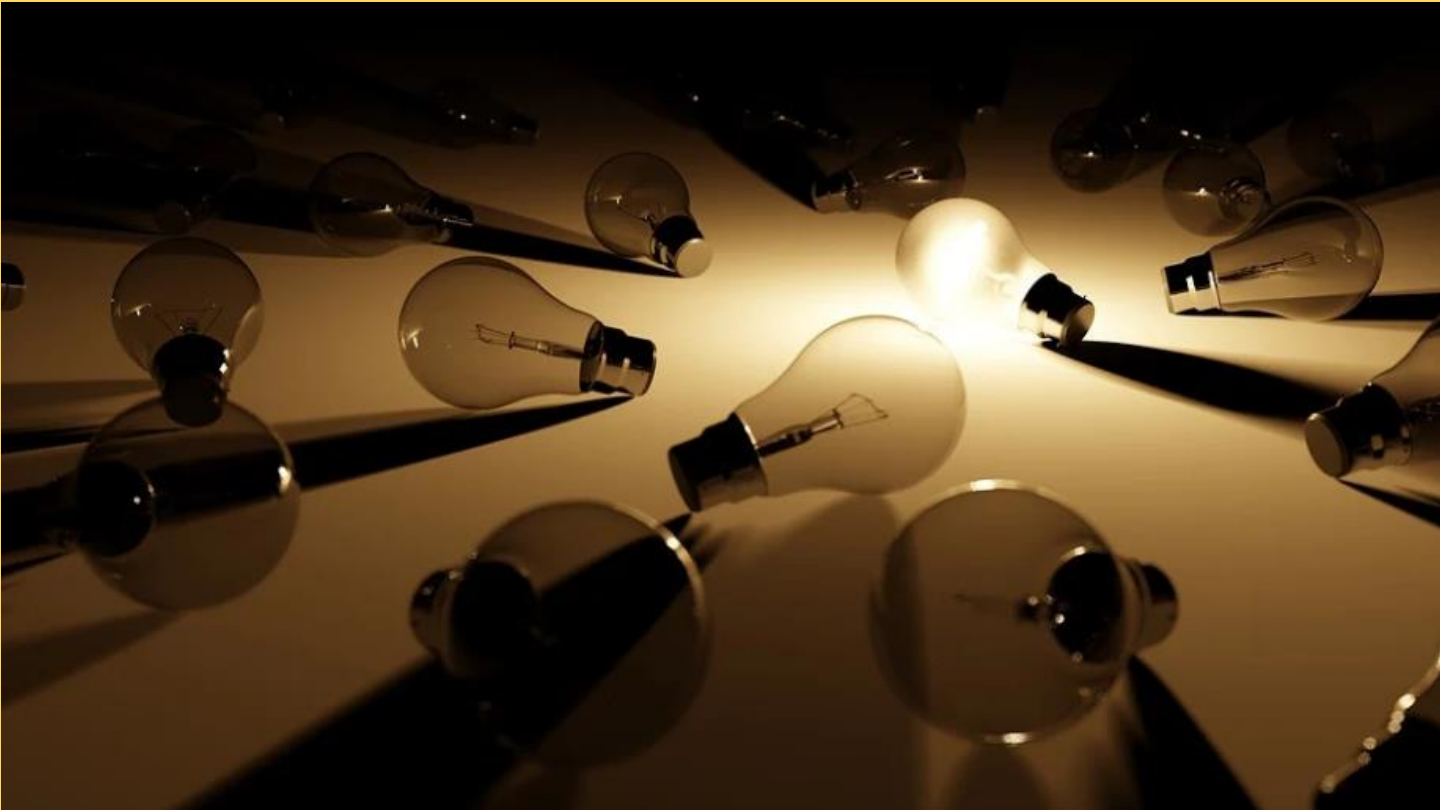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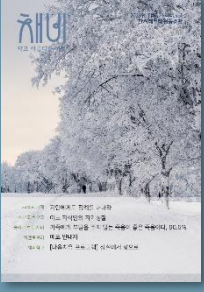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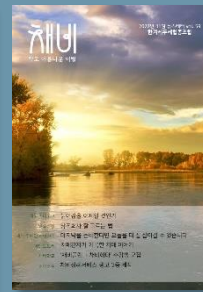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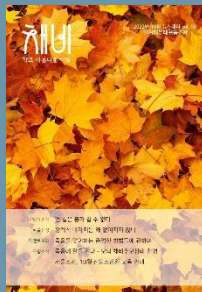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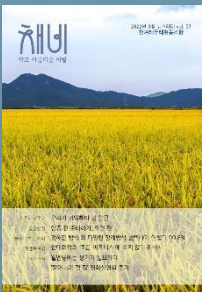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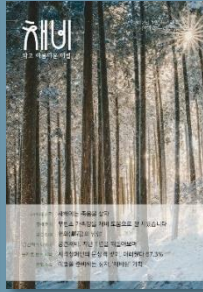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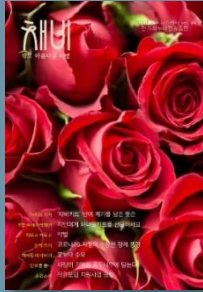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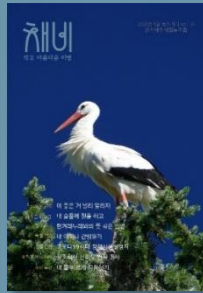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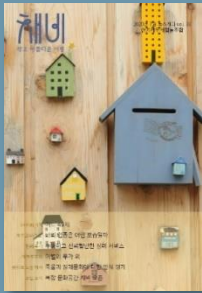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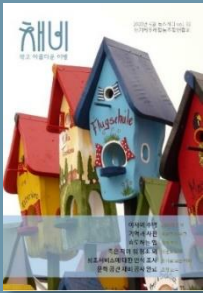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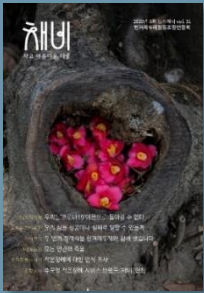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